

**빛처럼, 향기처럼 보이지 않는 선생님의 선한 나눔으로
부족한 샘터사람들은 감동을 먹고 지냅니다!!**

세상을 뒤 흔들어놓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한 그것에 적응하고 그 토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지금의 상황은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희처럼 후원에 의존해서 지내는 시설들의 체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지만 올해도 관내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위기가정 삼십 가정과 월드비전을 통해 다섯가정의 아이들을 더 품었습니다.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정, 모자가정, 조손 가정 ... 다양한 가족 구성원 속에 빈곤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생활하는 위기가정들. 겉으로 풍족해 보이는 한국 사회이지만 관심 갖고 찬찬히 들여다 보면 가난과 폭력 등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IMF 때 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지만 그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줄 수 있게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공익법인 소망의샘터로서의 걸맞은 모습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절 노인가정에 선물과 세뱃돈 전달!!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일 입니다.



후 / 원 / 계 / 좌

* 국 민 | 656501-01-250453

농 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Daum 또는 **NAVER, ZUM** 등

소망의샘터.kr을 검색하세요.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샘터** 사람들



공익법인 **소망의샘터**

2023 **봄호**



제1기관 | 아산 장애인 시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샘터님들!! 어느덧 꽃 피는 계절 봄이에요. 아직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저희 식구들은 외부인들과의 접촉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식구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힘겹지만 새로운 배움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한걸음씩 발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에덴을 응원해 주시는 소망의샘터님의 후원과 많은 기도에 힘입어 어려운 시기들을 모두 버텼고, 또한 다른 그 어떤 어려움도 소망의샘터의 후원자 선생님과, 봉사자님 덕분에 또 버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혀 지내서 답답 하기는 하지만 에덴식구들 목공 실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봄 모든 사람들에게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들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가득 차길 기대해 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김동원

확인되지 않는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소망의샘터 계좌로 보내주신 분들 중 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인사도 드리고 기부금 영수증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쁘시더라도 사무실로 전화 한번 주세요.

T. (032)541-4737 / F.(032)541-4738



입금자 성명 (존칭 생략)

구원자예수님 1,000,000원 | 김기백 50,000원 | 김동진(정기후원) 20,000원 | 김민아 20,000원 | 김승영 20,000원 | 김영임(정기후원) 20,000원 | 김재효(정기후원) 10,000원 | 김정권 30,000원 | 김종근(정기후원) 10,000원 | 모든분께행복을 100,000원 | 새해복많이받아 100,000원 | 소망의샘터 200,000원 | 소망의샘터기부금 50,000원 | 수고하세요 30,000원 | 안순자이호순 100,000원 | 엠제이 100,000원 | 오승원 120,000원 | 우민선 30,000원 | 이상원 100,000원 | 장삼렬 (정기후원) 10,000원 | 정준우 50,000원 | (주)돌집 30,000원 | 행복하세요 50,000원

제2기관 | 부랑아, 출소자 시설

길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우리 곁에 새봄이 찾아와 즐겁기만 합니다. 창가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이마에는 포근한 바람이 스치고, 동네 어귀 들판에는 아낙들이 옹기종기 모여 봄나물 캐는 모습이 정겹기만 합니다.

텃밭엔 긴 겨울 추위를 버틴 대파가 초록빛 모습을 뽐내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추운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형제들은 겨울 내내 버려진 밭에 꽃을 심고, 올 한해 풍요로움을 위해 밭에 비료와 퇴비를 뿌리며 기분좋은 구슬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안부를 묻고 일상을 살피주시는 소망의샘터 후원자님들,봉사자님들께서 언제나 곁에 머물러 주시어 형제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하루를 맞이 합니다. 이제는 얼었던 땅이 녹고 봄기운 가득한 가운데 3월의 끝자락에서 그동안 소식 전하지 못한 출소자시설의 봄 소식 전합니다.

모든 선생님들 꽃샘 추위에 감기 조심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전합니다. 모든분들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장 최옥숙



제3기관 | 근육병환우 시설

봄과 함께 마스크도 거의 해제가 되어 가벼운 마음입니다. 우리식구들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샘터 덕분에 여전합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환우들이기에 작년 가을 이후 거의 외출을 못하다가 마침 제일이 생일을 맞아 차이나타운에 갔다왔습니다.

왼쪽 낯선분은 새로 오신 활동보조선생님! 새로오신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희들 여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이 되는 공간 근육병환우시설 식구들 다시 한번 감사를드리며 곧 봄기를 기대하며 뽕때까지 건강들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원장 오상근

제4기관 / 성남 장애인 시설

올해는 왠지 대운이 열릴것 같은 예감이 들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년에는 시설식구들 누구나 할것없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모두 이겨냈고, 저는신장암 3기라서 수술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죽다 살아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대운이 열릴거 라는 확신이.., 소망의샘터에서 기도해주시고, 매달 후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떡국떡준비. 부침개 전 부치는 냄새, 보일러도 잘 돌아가는 소리에 아~ 정말 감사의 물결이 밀려 오는걸 주재하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소망의샘터 모든 분들께 축복과 대운이 열리시길 기원합니다.

원장 최상규

모든 소망의 샘터 선생님분들 몸소 봉사하시는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글

환우 유은미

제목 _ 매일매일 기쁨을 기록하세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냇물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정성은 나팔로 불고 단점은 가슴에 소리 없이 묻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보면 기쁜일도 있고 슬픈일도 있을텐데, 그와중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즐거운 일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쁨을 기억하는’ 작은 노트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고마운 일들과 행복한 기억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그대신 그 노트에는 슬픈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힘을 때마다 기쁨의 노트를 펼쳐보면 그동안 모아 두었던 행복의 순간들이 그대로 되살아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의 노트를 장만해 보세요!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성가셨던 일들을 쓸어버

리십시오! 기쁨으로 모든것을 채우십시오.

